

# 춘향제 '세기의 사랑' 13일 개막

### 16일까지 전통예술·대중가요 등 36팀의 48회 공연 펼쳐져

전통예술분야 1위에 빛나는 춘향제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제가 13일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6팀 48회 공연이 펼쳐진다. 그동안 전통예술 중심의 공연에서 춘향과 사랑의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들을 선보여 관객들과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춘향제의 위상을 지속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공연들을 살펴보면 전통예술, 클래식, 성악, 크로스오버, 현대무용, 퓨전국악, 농악, 연희극, 대중가요 등 예술적 퀄리티가 높은 공연들로 준비하여 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해외공연단으로 러시아민족예술단과 중국 열성시예술단, 이태리의 유명 성악가 및 지휘자를 초빙해 축제의 세계화 계기를 마련했고, 공연 전문성 강화 및 보편성 확보로 공연예술제의 품격을 높였다. 주제 공연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실록', 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 '아메도 내사랑아!', 햇님 여성국극단의 여성국극 '대춘향전' 등이 선정되어 한자리에서 3편의 창극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축제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공연으로 손꼽힌다.

이밖에 명인명창대향연, 브라스밴드 브라스맨, 전자현악 배드걸즈, 현대무용단 사포, 팡페라 T&G, 퓨전국악 헤이아 등 공연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안배하여 축제성을 강조했다. 특히 광한투 실경을 최대한 활용한 원형정 수상무대와 오작교 수상무대를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프로그램을 배치해 내방객들이 늦은 밤까지 문화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4일 토요일밤 12시에 열리는 변진섭 심야콘서트는 축제의 밤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 성료

### 영선중 학팀 · 고창고 N.S 2.5 팀 우승

지역 내 청소년들의 어울림 한마당 제2회 고창군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고창군실내체육관에서 고창군이 후원하고, 고창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해 '제2회 고창군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70명을 비롯,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체육관을 시종일관 건강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각 팀당 5명으로 구성된 중학교 7개 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고등학교 6개 팀은 리그전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경기 결과 중등부는 학(영선중)팀이 우승, 우섬이가 제일 잘생겼다(고창중)팀이 준우승, 마뽕프리미(대성중)가 장려상, 예찬이팀(고창중)이 격려상을 수상했으며, 고등부는 N.S 2.5팀(고창고)이 우승, 성일이 영당이(고창고)가 준우승, 뽕군 프렌드(고창고)가 장려상, 불(고창고)이 격려상을 수상했다. 고등부 우승 N.S 2.5팀(고창고)의 안우진 학생은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며 "친구들과 연습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서영주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스포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 격려상을 수상했으며, 고등부는 N.S 2.5팀(고창고)이 우승, 성일이 영당이(고창고)가 준우승, 뽕군 프렌드(고창고)가 장려상, 불(고창고)이 격려상을 수상했다. 고등부 우승 N.S 2.5팀(고창고)의 안우진 학생은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며 "친구들과 연습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서영주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스포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치즈체험

## 황금연휴는 온 가족이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 야외 상설 · 푸드 체험 등 다양... 어린이날 솜사탕 제공 · 8일 '가족편지 쇼' 공개녹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5월 황금연휴(5~8일) 기간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가정의 달과 관광주간을 맞아 스위스풍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열리는 체험행사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봄나들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야외 상설체험(새싹엽서, 바람개비, 연, 부채만들기 등)과 푸드 체험(치즈

아이스볼, 치즈떡볶이 등)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마련하여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과 가족의 소중함을 담아 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5일 어린이 날에는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솜사탕을 제공할 계획이며, 8일 오후 2시에는 전주MBC 라디오 여성시대(MC 김선식, 홍혜정)와 함께하

는 '가족편지 쇼' 공개녹화가 중앙부수 광장을 배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 편지쇼는 따뜻한 봄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표현하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며,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입상자에 대하여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며 박우윤, 서지운 등의 가수과 코리야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다양한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추 정식은 8일 이후 하세요

### 임실군 농기센터 저온피해 예방 현장지도 활동 강화

임실군은 노지고추 정식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알맞은 고추 정식 실천과 정식 후 고추 분담 관리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노지고추 정식시기는 서리가 날아는 임실군 만상일(5월 8일) 이후에 정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리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만상일 이후에 정식할 것을 농가에 홍보하고 있다. 최근 일부 농가에서 만상일 이전에 노지고추를 정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1주일 더 빨리 심는다고 수확량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조기 고추 정식으로 분담에서 저온피해나 서리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추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전체적인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조기에 노지고추를 정식해야 할 경우에는 기상청 예

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는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고추 정식을 위한 이랑은 배수관리를 위하여 높게 만들어 장마철 습해와 역병 등의 발생을 줄이고, 분담 분해충 관리를 위해 토양살충제 등을 미리 살포하여 초기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식시 심는 깊이는 너무 얇게 심으면 뿌리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에 흙이 닿게 되어 그 부분이 연약해지거나 토양병원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고추 지재부가 약간 덮힐 정도로 복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식 후 지주대와 유인줄을 빨리 설치하여 비바람에 의해 고추모가 쓰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이환주 남원시장

### 부처 방문 현안사업 국비건의

남원시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지난 2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남원문화재 국가사적 지정을 건의하고 교통대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또 이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북남원IC 진입로 개통에 맞춰 교통대로 개설(시청4가~향교동신협~의총로4가, 195억원)을 위해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 이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 문화도시지정, 안숙선전수관건립, 남원아트센터조성사업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서 농림부를 방문해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융복합개발사업과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재청 김종진 차장을 만나 남원읍성 복원지 사적 추가지정, 용성관 석물, 교통산성과 두라리유적구 가야고분군의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남원농악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승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5월 중 청원초회 개최

임실군은 2일 문화강좌실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무위원, 읍면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중 청원초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는 "5월은 군민들의 피부와 달을 수 있는 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민선6기 전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 조기집행 투단의 대책 강구, 임실N치즈축제 준비 박차, 한발 앞선 현장행정 추진, 보안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가 "가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위원의 '행복한 임실군 만들기'라는 주제로 직장예절 및 친절교육과 정남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폭력예방 전문 강사의 직장 내 건전한 문명과 정착을 위한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동행'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5월 중 비전다짐의 날 행사

박우정 군수가 적극적으로 활기찬 군정을 강조했다. 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중 비전다짐의 날' 행사에서 박우정 군수가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현안 사업이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보리밭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계획되고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고창군의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여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업용수관리와 농촌복지 개선,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달라"고 말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비전다짐의 날 후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특별 교육이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내수 진작 대책 추진

남원시는 5월 가정의 달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내수진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임시 공휴일인 6일 하루 동안 주요 공공시설인 관한투림, 춘향테마파크, 함공우추천문대,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백두대간생태체험 전시관 등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또한, 봄 여행주간(1~14일)의 이벤트 활성화를 위해 취타대·신관사또부임행사 등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음식점 등 21개소 업체에서 주요 할인 행사(업체별 5%~50%)를 추진한다. 롯데마트·이마트 남원점은 11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